

‘바이오 산업 육성’ 전문가 머리 맞댔다

정읍시, 창업생태계 육성 포럼 국가 첨단전략산업 공모 목표 산업부, 상반기 최종 결과 발표

정읍시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 단지 공모’ 선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읍시는 지난 24일 정읍시 신청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이학수 시장과 김관영 도지사, 관내 R&D 혁신기관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첨단바이오 창업생태계 육성전략’을 주제로 바이오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류영배 센터장과 창업투자사 크립톤 양경준 대표, 신약개발 기업 노보렉스 손우성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정읍시가 나아가야 할 바이오산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연평균 7.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7년까지 시장규모 1000조원을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적극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 동향과 정부 기조에 맞춰 전북자치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24일 신청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전북형 바이오 창업생태계 육성전략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지도는 전주-정읍-익산을 주축으로 한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신청서를 지난 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포럼이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선정으로 이어질지 희망한다”며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도록 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 발굴·탐사

군-완주문화재연구소 연구 협약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학술연구와 활용 협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에 대한 학술연구와 보존관리, 연구성과 활용·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 고인돌유적은 국가 중요 사적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선사시대 유네스코 세계유산(2000년 등재)이다.

고인돌 500여기가 한곳에 분포하고 있어 한반도 최대의 고인돌 군집을 이루며 탁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이 한 곳에 분포하고 있는 특수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두 기관은 고창 죽림리 고인돌유적에 대한 ▲분포현황조사 ▲정밀발굴조사 ▲항공 라이더(LiDAR) 탐사를 통한 고지형 및 경관 분석 ▲고인돌 석재와 토양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채석장 산지 연구 등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고창 고인돌에 대한 보존·관리 및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거석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치와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 차원의 연구를 통해



심덕섭(오른쪽) 군수와 최인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고인돌의 가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국내외 홍보를 통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욱 더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전기이륜차 구매시 최대 300만원 보조

정읍시, 배달용 등 46대 차등...취약계층 10~20% 추가 지원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급되는 전기이륜차는 일반 31대, 우선순위 5대, 배달용 10대 등 총 46대다. 지원 금액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30만원, 중형 및 기타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시민 또는 30일 이상 정읍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은 5대까지 지원받

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30만원,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절차를 대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사·공고 또는 무궁화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광한루서 음악 들으며 ‘남원의 봄’ 만끽

내일 버스킹 라이브 공연...남원시 유튜브 구독자 추첨 이벤트

남원 ‘춘향전’의 무대인 광한루에서 오는 27일 오후 6시, ‘남원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버스킹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봄을 맞이해 예술로 피어나는 남원의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 버스킹 공연은 시 홍보대사 박혜연 아나운서와 최훈락 피아니스트, 싱어송라이터 등 아티스트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연주곡들을 선사한다.

버스킹은 광한루원 내 안월정 앞 잔디밭에서 펼쳐지며 뜻지르 등이 준비되어 가족, 연인, 친구

누구나 프로그램을 편히 즐길 수 있다. 시에서는 현장에서의 인증샷 촬영과 남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남원시 TV) 구독 후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5월 춘향제가 펼쳐지는 광한루에 미리 오셔서 버스킹 공연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길 바란다”면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피어나는 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스포츠대회 연달아 유치...경제효과 기대감

내일부터 5일간 태권도대회 5월엔 동호인 테니스·공도대회 등 선수·지도자 수천여명 방문

남원에서 선수와 임원, 가족 등 방문객 7400여명의 어린이 태권도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스포츠 마켓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는 오는 27일부터 5월1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2024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회는 남원시와 전북자치도가 후원하고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과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남원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한다.

특히 대회 참가로 선수와 지도자 2300여명에 학부모까지 7400여명이 남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에서는 전국 초등학생 태권도 꿈나무들이 품새와 겨루기 등 열띤 경쟁을 펼친다.

품새는 27일 개인·복식·단체전과 자유품새로 치러지고 겨루기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한편 시는 5월에도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지난해 8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던 ‘제1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

‘전국 공도대회’, ‘아시아 초청 전국 게이트볼대회’, ‘전국 동호인 배구대회’ 등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은 물론 대회기간 단기적 경제 활성화가 연이은 대회로 장기적 대안이 되도록 힘써나갈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이 대회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 숙박업소, 식당, 문화행사, 관광과 연계하는 체육 대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